

광주 제조기업 20곳에 삼성표 ‘스마트 공장’ 구축

시, 10억원 투입...기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디지털 전환
삼성, 전국 상생 프로그램...전문 인력 기업 상주 노하우 전수

광주시가 올해 지역 제조기업 20개사를 선정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화한다.

시비 최대 10억원을 투입하고 기업당 총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해 생산·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제2캠퍼스에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키오프’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영문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선정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가 전국 200여 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생형 프로그램의 지역 실행 모델이다.

광주에서는 20개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 전담 인력이 6~10주간 기업에 상주하며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한다. 품질과 생산성, 물류 환경 등 공정 전반을 현장에서 밀착 개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원 구조는 시비 50%, 삼성 30%, 기업 자부담 20%다. 기업당 총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되며 시비는 최대 5000만원, 삼성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한다. 광주시는 단순 보조금이 아닌 현장 코칭과 기술 이전을 결합한 모델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 기업들은 선도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 가전·금형 관련 스마트공장을 견학하며 자사 공정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담 멘토단을 시범 운영한

다. 스마트공장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늘리고 제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 동향을 공유해 중소기업, 공급기업, AI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초 단계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일반형과 지역특화형 두 유형으로 나눠 20개사에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7개사가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구축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공장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 생산·제조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522억원을 투입해 461건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국비는 429억원, 시비는 93억원이었다. 단계별로는 기초 274건, 고도화 187건이다.

광주시는 이번 과제를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시간 단축 등 핵심 지표의 개선을 이끈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별 성과를 점검해 확산 가능한 모델을 정리·공유할 방침이다. 내년도 사업 설계에는 올해 현장 평가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이 스마트공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활 폐기물 수거 11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종합사회복지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원들이 주민들의 쓰레기 민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에 광주·전남 출신 7명 포진

해남 출신 임기근 차관 이어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임명

기획재정부 주요 보직에 광주·전남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제 2차관에 해남 출신 임기근 차관이 임명된데 이어 최근 박창환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기재부 예산실 요직으로 꼽히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발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 예산실에만 국장급 1명과 과장급 6명 등 광주·전남 출신이 7명 포진하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일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주요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 예산실 국장급 보직에는 광주·전남출신 인사가 없었는데, 이번 인사로 국장급 자리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는 경제예산심의관에 지역 출신이 임명됐다.

박 경제예산심의관은 광양 출신으로 광주 인정

고를 졸업했다. 박 심의관은 행시 41회로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기재부 핵심 보직을 거쳐 2022년 전남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됐다. 올 5월 기재부로 복귀한 뒤 최근 인사를 통해 경제예산심의관에 발탁됐다.

경제예산심의관실에는 최용호(광양·순천고) 국토교통예산과장장과 김정애(장성)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현창(해남·대동고)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지역출신 과장도 3명이 포진했다.

이밖에 사회예산심의관실에 정성원(무안·영산포상고) 문화예산과장, 박환조(광주·고려고) 기후환경예산과장장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에 박철건(광양·순천고) 복지예산과장 등도 지역 출신이다.

박창환 국장이 신임 경제예산심의관에 임명되고 예산실 과장급 보직 24명 가운데 광주와 전남 출신이 6명이 배치됐다는 점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보면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동안 호남인사들이 기재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게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들의 설명이다.

박창환 국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임식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전환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예산실을 지휘하는 제 2차관에 자리에도 지역 출신의 임기근(해남·임기근) 차관의 존재도 지역 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기재부 내에서는 조만간 호남 출신의 예산실장이 배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출신 관료가 배제됐다. 이제서야 지역 안배 차원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역 출신 관료들이 기재부 예산실에 많을수록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KIA 홈경기서 ‘투어버스’ 홍보

광주관광공사가 12일 KIA 타이거즈 홈경기 현장에서 수요응답형 관광교통 ‘광주 투어버스(DRT)’ 홍보에 나선다.

경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앱 설치 확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진행해 서비스 인지도와 신규 다운로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버스 운영은 오후 4시 30분부터 KIA 챔피언스 필드 7번 게이트 앞에서 시작한다.

관람객이 광주투어버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확인받으면 즉석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품은 어센틱 유니폼과 식음 쿠폰, 모바일 상품권, 쿨

패치, 생수 등으로 구성됐다.

1등 경품은 유니폼 10벌이 준비됐고, 쿠폰과 상품권, 생활용품을 합치면 총 190점이 배포된다.

광주 투어버스(DRT)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호출형 교통 서비스다. 관광객이 요청하면 태우러 오는 일종의 콜 버스다.

행사 당일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 이용 방법과 노선·예약 안내를 병행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농어업 가업승계 범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확대

이동현 도의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

농어업 가업승계의 범위·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동현(민주·보성2) 의원 대표발의로 ‘전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젊은 농어업 인구를 늘리고 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 가업승계인의 범위를 현행 ‘직계존속’에



서 ‘형제 자매, 부모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고 가업승계인이 갖춰야할 농어업 종사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다.

가업승계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신축, 수리, 임차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농가 수가 전년보다 3.9%, 어가수는 1%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동현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서 가업 승계 유형이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등 친척 관계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변화에 맞춰 농어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농협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한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마트동림점 062)511-2901~3